

2018 청년허브 지원사업 설명회

일시	2018년 4월 19일 (목)	장소	청년허브 다목적홀
내용	청년허브 지원 사업 소개		

<사회자:박주로>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2018년 청년 허브 지원 사업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 보다 굉장히 많이 오셨어요. 저는 작년 까지 서울시 청년 공간에서 일을 했고요. 올해부터는 스타트업을 하고 있는 사회혁신기업의 박주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저는 전문 사회자가 아닙니다. 실수하더라도 이해해주세요. 아마도 저에게 진행을 맡기신 이유를 생각해보니까 오늘 여러분이 설명 들으실 참과 활 사업을 모두 참여했거나 진행해봤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2013년도에 청년참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친구들과 아직까지 만나고 있고, 세계여행을 다녀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허브와 함께 청년 공간 전체 조성 및 운영계획에 대한 기획연구도 진행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서울시 청년 공간을 운영하고 지금도 계속해서 관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사업 설명회 순서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이 자리에는 지금까지 청년허브에 다양한 사업들을 참여하시거나 지켜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처음인 분들도 많이 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순서를 보시면 사업에 대한 배경부터 허브에 대한 소개와 같은 아주 기본적인 내용부터 구체적으로 청년 참, 활 그리고 공간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볼 수 있는 세션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단체 Q&A 시간도 2부에 마련되어있습니다. 다른 장소들에서 참과 활 그리고 공간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인 질문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애프터 세션이 따로 마련되어 있으니 기억해주시고 참여하시면 굉장히 유용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전체의 순서 중 제일 먼저 허브 소개와 사업 안내를 진행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에 각 사업을 참여했던 분들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함께 먼저 참가신청을 하면서 보내주셨던 질문들도 있고, 아니면 저희가 잠시 휴식시간에 질문을 받을 텐데 그때 질문을 가지고 구체적인 세션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아 바로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청년허브의 '안연정 센터장'님 모시고 지원 사업에 대한 배경과 허브 소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센터장:안연정>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년허브 신임 센터장 안연정이라고 합니다. 청년허브 지원 사업이 조금 늦게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래도 기다려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오늘 이 자리에 작년도 허브와 함께 만났던 이야기를 소개해주시러 와주신 분들, 사회를 맡아주신 사회자님께도 감사 인사드리면서 허브소개를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에 청년허브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11일이 허브의 5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지난 5년간 청년허브의 시작을 잠시 돌아보니 이렇게 3가지의 문제의식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보다 가난한 첫 세대라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아주 공식적으로 있었고 격차는 계속 벌어지기만 하고 있습니다. 공시생이 50만인 시대가 되었고, 끊임없이 도전은 강요하지만 실패할 기회가 허용되지 않는 사회라고 청년들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허브는 청년들이 삶을 모색할 수 있는 다양한 장을 열고, 청년의 문제에서 출발하여 청년과 사회의 새로운 접점을 만드는 허브를 만들기 위해서 2013년부터 서울시와 연세대학교가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청년정책은 이렇게 구체화되었습니다. 2015년 2020서울시 청년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크게는 (일자리, 설자리, 살자리, 놀자리)라는 4개의 섹션으로 구체화된 정책들이 발표되었습니다. 아마 여기 오신 분들도 이 정책들을 많이 접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정책적 배경을 기반으로 청년허브도 각종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지난 5년을 활동하고 있습니다.

청년허브로 시작된 서울의 청년정책이 지난 5년간 이렇게 확장되었습니다. 보시다시피 2013년에는 서울시와 서울의 '청년들의 정책을 실행할 기관이 필요하겠다' 라는 취지로 청년허브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2014년~2017년 점점 별집이 늘어나는 것처럼 이제는 무중력지대 까지도 올해로 보시면 7개가 늘어나면서 확장된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5년이 지난 청년허브는 2기 청년허브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출발을 합니다.

저희는 올해 'Youth commons Hub'를 시도하려고 합니다. 잠시 설명을 드리면 각자생존의 논리와 태도를 넘어서는 공통감각을 만들기 위한, 그리고 세대간, 지역간, 국가간 협력을 시도하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우정과 연대, 지지와 협력, 경계를 넘나들며 다양한 파트너들과 함께 'Youth commons Hub'를 만들겠습니다.

이제 청년허브는 우리를 둘러싼 사회적 문제, 그리고 변화들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기 위한 청년시민 거버넌스 구축합니다. 그 안에서는 대표적으로는 서울의 청년정책들을 열심히 당사자중심으로 생산하고 활동하고 있는 서울청년정책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각 지자체에 생기고 있는 무중력지대, 'Youth commons Hub' 네트워크를 통해서 운영지원을 하겠습니다. 청년정책 이슈를 발굴하고 확대하겠습니다. 정책 및 활동연구 지원 및 기록과 발신, 온라인 안에서도 서울의 청년정책, 그리고 서울의 다양한 활동, 서울 청년들의 문제의식들을 공유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협업에 기반한 공공플랫폼 조성을 위해서 청년공유공간을 활성화합니다. 청년공간들을 지원하고, 청년허브 1층에 창문카페라고 대부분 아실거예요. 창문카페가 자립실험실이라는 이름으로 청년주체들이 운영하는 카페인데요. 올해에는 청년허브의 공유공간들과 건너편에 보시면 청년청이라는 입주공간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청년들의 자립실험실을 확대해보겠습니다.

세번째는 사회적 공공가치를 만드는 활동들을 지원하겠습니다. 오늘 아마 여러분들이 이 지원 사업 설명회에 오신게 이 활동에 대한 사업 속에 참여를 하실텐데요. 청년활동들의 커뮤니티, 프로젝트, 연구로 나뉘어져서 지원활동의 주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성과 시민성을 학습하고 실행하는 장을 마련합니다. 과거에도 아마 청년허브의 청년학교를 통해서 허브와 만나실 기회가 많았을 것입니다. 올해는 '커먼즈'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하는 학교들을 일시적으로 차근차근 하나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층적인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려고합니다. 가장 기반이 없고, 격차가 벌어져있는 세대라고 할 때, 우리에게 사회적 자본은 경험지식일 수 있습니다. 또 함께할 수 있는 동료가 늘어나는 것일 수도 있고. 변화를 함께 모색하는 과정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실질적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회적 자본을 형성을 위해 연계자원을 발굴할 것입니다. 두번째로는 문제해결을 위한 국내외연대를 강화하고 세번째로 청년공유자산 모델을 개발해서 추진하는 모델사업을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1기 허브를 지내고 제가 허브에 온지 4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허브의 사업들, 그리고 허브가 과정에서 어떤 분들을 만났는지 이야기들을 훑어봤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 가져왔고, 여기서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밖에 나가시면 창문에 붙어있으니 나중에 돌아가실 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허브가 '커뮤니티 지원을 왜 하는가'에 대해서 이 글이 저에게는 와 닿았었는데요. "단지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한 발자국을 선택할 뿐입니다. 같은 고민을 나누는 이들과 진지하게, 그러다 유쾌하게 자신의 삶과 선택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청년학교 작년 제주도 와랑와랑 캠프에서의 정은혜 강사의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활동 안에서는 작년 국제교류 국제컨퍼런스에 초청되었던 도시 게릴라 기획자이자 창작자인 야코 블룸버그의 이야기인데요. '할 수 있다면 문제는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입니다.', '최악의 상황이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허가를 받는 것 보다 용서를 구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저는 항상 적절하게 실행해왔어요. 생각했던 결과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도 괜찮습니다.', '너무 많이 생각하거나 겁을 내지 않았지요.'

공간은 어떨까요? 저는 오늘도 이야기 손님으로 발표를 해주실텐데요. 이분의 글을 보면서 청년들에게 공간은 어떤 의미일까를 생각해보게 되었고, 우리가 왜 계속 질문들을 하게 하는 사회에 살고 있는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짧게 읽어보면 ‘청년들은 어디에 모일까요?’, ‘모여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대규모 자본이 투입된 기획과 공간이 아닌 비상업 소규모 프로젝트 공간의 존재이유는 무엇이어야 할까요?’, 전시나 워크숍 등 여러 가지 기획을 진행하다보면 이 질문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종략하고 마지막에서 한 단락을 더 읽고 싶은데요. 공공과 사적 영역의 중간에서 탐구하는 방식이 매우 생활적일 때 우리는 그것을 쉽게 폄하하기 마련이지만 그 가치를 옹기 이끌어내는 사람들이 우리임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하이파이브 프로젝트이사 이도진님의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청년들의 문제의식들을 연구하는 연구지원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 본인 전원의 의지로 원자력 발전을 이용하고 사고를 일으켜서 미래의 아이들에게 마이너스 유산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천문학적인 빚을 지게 하였습니다. 여전히 매우 슬프고 분함을 느낍니다. 대체할 수 있는 건 없을까요? 벚꽃이 만개 하는 것을 보고 20~30년 후에 미래의 아이들에게 산에 핀 벚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삶의 재구성 학교의 후쿠시마의 벚꽃프로젝트의 소개글 중 일부입니다.

2018년 청년허브의 지원사업을 준비하게 된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제 우리의 미래가 더 좋아지는 것을 상상하는 것을 넘어 얼마나 더 천천히 덜 나빠질 것인가를 생각하고 행동하는 활동들을 지원합니다. 이 글은 저희가 지원사업을 설계하면서 청년허브의 지원사업에 함께하고 참여하셨던 분들을 모시고 몇 번의 이야기를 받았을 때 나왔던 말이었습니다. 어찌면 ‘빛나는 서울을 만들자’ 아니면 ‘빛나는 미래를 만들자’라는 이야기가 꼭 앞장서는 누군가가 있어야만 할 것 같다는 기대를 하게 되었었고,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곳에 앞장서는 것에 대한 부담감과 함께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담, 또 너무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무력감을 느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얼마나 더 천천히 덜 나빠질까 생각하고 행동하자라는 말이 저도 제가하나의 개인으로써 함께할 수 있는 동료들, 친구들과 함께 조금씩 덜 나빠질 수 있는, 천천히 나빠질 수 있는 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로와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원 사업은 ‘반짝이는 서울을 바꾸자’, ‘서울의 문제를 해결하자’는 선언 보다는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 사회 개인적인 삶, 공동체의 삶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씩 천천히 해보면 어떨까? 그런 시도와 여러분들의 계획들을 청년허브가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원사업의 슬로건은 ‘Do It Together. Self-Organization’ ‘함께 만들고 스스로 자기구성력을 가지고 조직해보자’ 라는 슬로건과 함께 올해 청년허브지원사업의 포문을 열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저의 허브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번에 모실 분은 청년허브지원사업은 유스임팩트팀에서 맡고있습니다. 올해는 작년 처럼 사업을 나누어서 팀들이 배분되지 않고 유스임팩트팀이 지원사업을 총괄하게 되었습니다. 이사업의 총괄인 원대로 팀장님을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유스임팩트팀장:원대로>

네 감사합니다. 저는 청년허브 유스임팩트팀의 '원대로'라고 합니다. 앞서 청년허브 센터장님 발표 들으신 것처럼 단순히 초긍정하는 장밋빛 미래를 상상하기보다는 조금 더 천천히, 덜 나빠지기 위해서 우리의 미래를 생각하고 그 안에서 해보겠다고 용기를 내어주시는 분들, 즐겁고 재미있게 활동하는 분들을 오늘 설명드릴 이 사업을 통해 만나고 싶습니다.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사업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허브의 지원사업은 크게 청년참과 청년활로 구분됩니다. 청년허브의 지원사업은 참, 활로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커뮤니티를 만나고 연결하는 청년참, 연구, 프로젝트, 교류, 행사, 워크숍 등등의 활동을 지원하는 청년활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거기에 조금 더 특이한 것은 작년까지 청년 활력공간으로 불렸던 공간지원은 활동이라고 하는 맥락 안에서 청년활 트랙에 위치하는데요. 공간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청년활 @ 공간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세 가지 사업에 대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참)

먼저 2018년 청년참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청년허브는 시작할 때부터 이런 가설을 세웠습니다. 3명이상이 모이면 작은 사회가 된다. 그래서 서로 다른 청년들이 모이기만 해도 되고, 모이다보니 모이는 횟수나 사람의 수가 늘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스스로 구성하는 그러한 커뮤니티들이 생겨나고, 그러한 커뮤니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커뮤니티들이 서로 다른 커뮤니티들과의 연결을 돕는 사업입니다.

청년참을 통해서 이런 커뮤니티들과 만나고 싶습니다. 모이면 신나고 즐거워서 계속 모이게 되는 커뮤니티, 지원을 받으면 더 잘되어야겠지만 그래도 모임을 지속할 가능성이 더 많은 커뮤니티, 그리고 우리의 활동을 다른 사람들과 같이 공유 하고 싶은 커뮤니티, 이런 커뮤니티들을 서로가 서로에 대해 질문하는 그룹 인터뷰라는 과정을 통해서 선정할 예정입니다.

지원은 많이 아시겠지만 커뮤니티 활동에 필요한 모임이 최대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청년참의 특색 중 하나인 '반상회' 처럼 커뮤니티와 커뮤니티, 또 필요한 자원을 연결하는 기회를 조금 더 집중해서 만들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팀들이 지원 가능할까요? 서울에서 활동하는 최소 3인 이상의 청년 커뮤니티면 청년참 사업에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참에 선정되시면 이정도 사항은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커뮤니티 활동을 온라인으로 공유해주시고요. 최근에 청년참 활동을 하셨던 분께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열심히 정리해서 온라인에 활동을 올렸는데 '좋아요'가 없으면 되게 힘들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활동의 공유도 결국 서로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온라인

활동에 대한 공유도 해주시면 됩니다. 청년참여의 특성인 반상회도 2회 이상 참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올해 청년참여는 사실 크게 달라진 게 없는데 라고 많이 하실텐데요. 특히 반상회에 대해서 만큼은 백투더베이직으로 돌아가서 서로가 충분히 만나게 하고, 만날 수 있고, 연결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업 종료 후 정산기간 내 결과보고서와 정산보고서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청년허브 홈페이지에 공고문이 올라가있습니다, 청년허브 홈페이지에 올라간 청년참여 공고는 5월 청년참여입니다. 그래서 5월 말 경에 6월 청년참여 등장할 예정이며 5월 청년참여에 대한 참가 신청 접수는 4월30일부터 5월7일까지입니다. 청년허브 홈페이지 청년참여 공고문에 있는 참가신청링크가 4월30일 오전 11시부터 열릴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그룹인터뷰는 5월10일부터 5월12일까지 열릴 예정인데요. 4월 30일부터 참가 신청 하실 때 5월12일까지 그룹인터뷰 일정을 선착순으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토요일을 선택하시면 되고, 평일에 괜찮으신 분들은 평일에 시간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한 테이블 당 저희가 소화할 수 있는 인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선착순으로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월참여도 5월 말 경에 진행될 예정이며 반상회는 매월 1회 예정이고, 2회 이상 참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원금 집행은 10월 말 까지 사용하시는 것이며 11월1일부터 11월12일까지는 결과보고서와 정산보고서를 제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청년참여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청년활동)

청년활동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활동을 통해서 경험, 실행, 시도, 실패를 지원하고 있는 세상과 우리의 미래를 조금 더 천천히 나빠질 수 있도록 스스로 실행하는 다양한 활동을 지원합니다.

독창성 창의성 프로젝트 구체성 실행 단체의 영향 사회적 확장성 등을 기준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프로젝트 지원사업이나 활동지원사업과 비교해본다면 일반지원사업은 어떤 내용의 프로젝트를 할 것인가, 또 얼마나 잘할 것인가를 보통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청년활동은 활동내용 계획 실현가능성 물론 중요하지만 청년허브가 더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은 여기 계신 분들과 청년 단체 분들이 활동하시면서 생기는 질문들, 또는 활동을 계획하시면서 생기는 질문들이 무엇인지 어떻게 풀어가고 싶으신지 그 고민들을 내어주시면 청년활동을 통해서 같이 그 문제를 풀어보고 싶습니다.

최대 1000만원의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1000만원 예산의 프로젝트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최대 1000만원의 예산으로 시도하시고 싶은 'Do It Together' 프로젝트를 지원합니다. 작년 까지만 해도 공모연고를 따로 신청을 받았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청년활동 트랙에서 지원하시면 됩니다. 연구뿐만 아니라 연구, 제작, 행사, 활동, 캠페인, 해외교류 사업개발까지 정말 다양한 분야의 활동들을 신청해주시면 최대 1000만원 내에서 지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조직하고 구체적인 프로젝트 계획이 있는 서울에서 활동하는 청년, 개인도 가능하

고 단체도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이든 단체든 'Do It Together'라고 하는 가치와 방식에 기반해서 신청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청년참 처럼 청년활동 선정되신 분들께 요청드리는 사항이 있습니다. 활동 공유회와 결과 공유회, 선정되신 분들과 함께할 예정인데 그 과정에 참여해주시게 됩니다. 사업은 10월 말 까지 마치시고, 10일 이내에 결과보고서와 정산보고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청년활동에서 해외탐방 가지거나 교류신청 하시거나 해외연설을 초청해주실 때 관련된 보고서나 강연 영상 등을 같이 공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청년들과 그 자료를 함께 공유한다는 차원으로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정은 이렇습니다. 신청기간은 청년참 신청 시작기간과 같습니다. 4월30일 부터 접수를 받고, 5월 중순경에 서류심사를 진행하고, 서류심사에 통과한 단체들은 현장으로 허브와 심사위원이 직접 현장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그룹인터뷰 방식으로 최종 선정팀을 발표하게 됩니다. 청년활동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연구 외에도 다양한 활동들을 다 포함시켜 주시면 됩니다.

(청년활동@공간)

마지막으로 청년활동@공간입니다. 청년활동 파트에서 공간은 어쨌든 다른 활동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기에 청년활동@공간으로 따로 분리했습니다. 입에 잘 안 붙으신다면 그냥 공간활동로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청년활동@공간은 커뮤니티 활동의 거점이 되는 공간, 운영자 커뮤니티를 지원합니다.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스스로 만들어가는 창의적 공공지대를 만드시고자 하시는 분들, 각자도생을 요구하는 시대에 환대와 우정을 나누는 비빌언덕을 만들고 싶으신 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청년활동처럼 서류심사가 있고, 통과한 팀에 공간에 허브와 심사위원이 직접 가서 깊이 인터뷰하는 현장 인터뷰 과정을 거치고 그룹인터뷰로 최종공간을 선정하게 됩니다.

지원내용은 사업비 운영비 조성비 등 최대 2000만원 범위 내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지원하실 수 있냐면 서울에서 청년공간을 1년 이상 운영하고 있고, 사업자 등록증이나 고유번호증이 있는 3인 이상의 청년단체여야 합니다. 청년공간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는 않지만 아까 사회자님께서 연구하셨던 자료에 따르면 서로 다른 삶을 살아가는 청년과 시민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물리적 공간을 같이 공유하는 일종의 공존의 경험을 만드는 공간으로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종 선정되신 팀은 월1회 주인장모임에 참석해주시고, 월1회 공간에 대한 주간운영일지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운영일지 항목은 최종선정팀과 이후의 워크샵을 통해 함께 항목을 정리할 예정입니다.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로 집행종료 시 10일 이내에 결과보고서와 정산보고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청년활동@공간의 일정은 청년활동과 똑같습니다. 물론 프로젝트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심사와

정은 별도로 진행하지만 일정은 똑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논의 중인 사업을 간단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연상이 되실지 모르겠는데 청년허브랑 온라인 모금플랫폼 카카오와 협력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이 안돼서 써놓진 못했는데 청년참이나 청년활은 사실 공공적인 성격의 사업만 지원하지 않습니다. 커뮤니티같이 개인적인, 사적인 것도 지원하는 것입니다. 현재 논의 중인 사항이라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사회적 가치를 만드는 청년활동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공모과정을 거쳐 선정된 팀은 청년허브와 카카오가 매칭하고 카카오의 모금 플랫폼을 이용해 펀드마련과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상으로는 6월~7월경 준비하고 있고, 구체적인 내용 결정되면 청년허브 홈페이지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사업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